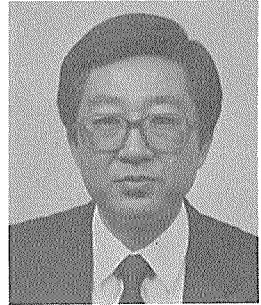


새해는 기술혁신의 해



배순훈 / 본회 비상근부회장
대우전자(주) 사장

새해는 기술혁신의 해다. 어려워지는 경영여건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술혁신밖에 없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출시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지난해 실적을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공기방울」세탁기는 이제 성숙한 상품인 세탁기에 새로운 활기를 불려 넣었다. 기포와 세탁물 표면에 복잡한 유체역학 현상을 활용하여 세탁력을 높히고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혁명적인 세탁방식을 상품화해서 성공했다. 새해에는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세탁기로 A/S가 필요없는 소음이 없는 세탁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TV는 화질과 음질이 기본이다. 화질과 음질을 日本제품과 비교하여도 훨씬 개선된 제품이 「임팩트」TV이다. 새해에는 기본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가격이 저렴한 「임팩트」TV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TV는 이제 방마다 설치하는 1가구에 여러대 TV시대가 도래하였다.

멀티미디어의 HA시대에 맞는 TV는 굳이 복잡한 기능이 많고 값이 비쌀 이유가 없다. 지금 소비자가 구매하는 TV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셀프」냉장고의 퍼지제어는 이제 두번째세대로 뉴로시대로 들어 가고 있다. 음식의 신선도를 위하여 온도를 초단위로 마이크로 조정할 수 있는 신경망컴퓨터 원리를 이용한 뉴로제어를 하는 신제품이 기획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보관식품 양을 수용하기 위한 내부용적도 훨씬 크고 시원한 냉장고가 주부들의 꿈이다. 10년을 사용할 냉장고는 눈에 띄는 디자인 보다는 실증나지 않고 편리한 냉장고이다.

멀티미디어시대의 VTR은 PC와 복합제품이어야 할까? 조그사들을 디지털화한 디지털VTR은 첨단기능을 속에다 감추고 소비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써보면 써볼수록 편리한 제품이 대우 VTR이라는 평판을 위해 신제품이 설계되고 있다.

소비자는 전자오븐에 무슨 요리를 할까? 손님 접대는 가스레인지 사용하고 급한 음식을 전자오븐에서 해야 한다. 눈감고도 사용하기 편리한 오븐은 인텔리전스를 감추어야 한다.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시계같이 정확한 전자오븐이 출시될 예정이다.

좋은 제품은 정성스런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정성스런 솜

씨는 회사 종업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한 목표로 나갈 때 발휘된다. 노사화합은 미래가 있는 회사 보람있는 일터에서 이루어진다. 새해에는 세계시장에 좋은 상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개선에 이바지하고 내수시장에도 좋은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칭찬받는 보람있는 일터로 회사의 미래를 가꾸려고 하고 있다.

우리회사가 잘되려면 우리 대리점이 잘 팔아주어야 하고 우리원자재공급이 협력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대리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성장했고 금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성장을 할 예정이다.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지 않아도 우리의 대리점 매출은 크게 신장할 수 있어 경쟁사와 크게 다룰 필요가 없다. 판매는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이미 매출신장률이 확대되고 있는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사 보다는 후발업체의 장점이 있어 매출신장률이 쉽게 커질 수 있고 생산성 향상도 유리하다.

새해에는 소비자 만족, 대리점 수익률 증대, 생산성 증대로 우리의 경영이 건실해 질 것이다.